

손봉호

본회 이사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  
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한계

## 머리말

지금은 한국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대해서 반성해 볼 매우 좋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1)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2) 대통령 후보자 가운데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염려가 없고, (3)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던 장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4) 과거처럼 정치참여 그 자체의 도덕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치의 정통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1) 핍박받는 소수가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2)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에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쓸 만큼 성숙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가 자주 일어나야 하고, 반성과 토론이 반복됨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뿐 아니라 지혜의 축적과 인식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정치의 중요성

물론 정치는 국가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교회, 회사, 친목단체,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인의 구체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정치이므로 여기서는 우리의 관심을 주로 거기에 집중시켜서 논의해보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I) 국가의 위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고 (II)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I)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기관은 가정, 교회(사찰, 향교), 그리고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과 교회는 약화되고 있다. 국가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서양에서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한 이상과 반복되는 시도, 마르크스 주의, 소련이나 구주공동체와 같은 초국가 연합 등이 그 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느 것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국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1) 우리 나라도 이제 시민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시민사회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이 서로 계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노비, 여성, 어린이 등 과거에는 전혀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 향유와 이익배분을 요구하게 됨으로 이해갈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2) 동시에 사람들은 자연환경에서 점점 더 벗어나 인위적인 문화환경에서 살게 되고 인간 상호간의 의존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

그것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개인의 생존과 행복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3) 유기화와 더불어 사회는 동시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다원화되고 있다. 가치관, 세계관 등이 다원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 평등에 대한 이해 조차도 다양해졌다고 M. Walzer (Spheres of Justice) 같은 사람은 주장한다. 따라서 영역마다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complex justice). 그것은 관점, 영역, 계층간의 정의로운 이해조정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요구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침해화되고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국가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국가의 힘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던 전통, 종교, 합리성 같은 것은 점점 약화되고 이제 는 국가만이 그 역할을 독점하게 되었다.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국가는 경쟁에 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바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적 단위의 단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II) 국가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실만으로 정치를 중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정책의 집행이 상당한 세력을 가진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결정될 때만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른 어느 정부형태보다 정치에 더 의존하고 효율적인 정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 정치활동을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이룩한 의사결정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2. 한국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의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어느 정도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고 자신의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2)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고 복음전파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열어 두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를 무시할 수 없다. 노력하면 선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복음전파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하여,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구제는 잘못된 구조, 제도,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만드는 구조, 제도,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며, 그런 것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4) 지금 한국교회는 초대 교회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의 지도급과 여론형성층에 기독교인들이 편중되어 있다.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기독교와의 관계를 과시하려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힘이 있으면 책임도 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아서 정치가 잘못된다면 이는 무책임이요 죄다. 명령을 어기는 것(commision)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amission)도 죄다. 특히 그 결과로 지금처럼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들어 무수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 3. 한국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한계

정치적 참여는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분야

들에서도 그러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치적 힘이 없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1)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하지만 정치에 전혀 관심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신약시대처럼 적 그리스도적인 국가의 힘은 너무 크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너무 적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때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정치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성경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의 기본 원칙은 성경에서 다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은 정치적 권력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친다.

(2) 정치 참여의 정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우리는 광의의 정치와 협의의 정치를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정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거기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의 정당 내에서라도 기독교인만의 정치 조직을 형성하여 의식적으로 기독교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정치는 제도적, 법적인 권력을 갖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관에 영향을 끼침으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이 시점에서 협의의 정치 참여를 시도할 것인지 광의의 선택을 취할 것인지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나는 한국의 상황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수준이 아직은 협의의 정치참여가 가능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광의의 정치참여로 만족해야 하며 협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i) 아직은 우리 유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수준은 정당한 수

단을 통하여 권력을 얻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법을 어기며 거짓말, 인신 공격, 금품 살포, 연고 호소 등 기독교적 양심이 용납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매우 뛰어난 정치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정치적 세력을 행사할 만큼 유능한 그리스도인 정치가를 아직은 배출하지 못했다. 정치 관계법들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이 공정해야 하며 공권력이 충분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 정치가 항상 도덕적으로만 이룩될 수는 없다. 가끔 다소 비도덕적인 수단이 이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만약 도덕적인 수단만으로 정치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협의의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수단이 정도에 지나쳐서 복음과 기독교의 순수성에 흠이 가거나 그 비도덕적인 수단이 가져 올 수 있는 해악이 그 수단을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월등하게 클 때는 그런 수단은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후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수단은 현실 정치에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비도덕적 수단으로 만든 효과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ii) 그리스도인 유권자들도 민주 의식 성숙도에 있어서 비기독교인 유권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투표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훈련을 거친 신도가 그렇게 많지 못하다. 즉 신앙에 따라 투표하기 보다는 연고 등 다른 요인들이 후보자 선택에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iii) 유권자 못지 않게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기독교적 의식 수준도 매우 낮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들을 고려

하면 오히려 비기독교인 정치인들보다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부정이 더 큰 경향이 있다. 그런 정치인들로부터 기독교적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iv)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이므로, 비록 보편적인 정의를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다른 종교 신자들이 정당하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독교의 급성장을 다른 종교인들은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에 기독교적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과 기독교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해서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 정치인들은 오직 보편적인 정의를 위해서만 활동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때만 종교간의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천년이 넘는 기독교적 문화의 배경을 가진 유럽의 기독교 정당들이 한국에서 모형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

(4) 그러나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의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을 뿐 아니라 협의의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기독교적으로 협의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기독교적 시민운동을 펴거나 다른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 운동은 (i)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태여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할 수 있어서 권력투쟁에 싫증이 난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ii)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에게 위협이 될 이유가 없다. 만약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런 시민 운동을 펼친다면 협의의 정치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결점에 구애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협의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 못지 않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88